



보도 일시	2023. 2. 17.(금) 15:00	배포 일시	2023. 2. 17.(금) 8:30
담당 부서	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정책과	책임자	과장 김정균 (042-481-5168)
		담당자	사무관 강희만 (042-481-5429)

## 제약산업 세계 경쟁력, 지식재산으로 날개를 펴자

- 2.17(금) 특허청·제약업계 지식재산 분야 현장소통 간담회 개최 -

- 특허청(청장 이인실)은 2월 17일(금) 오후 3시 한국지식재산센터(서울 강남구)에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국내 제약업계 주요기업\*의 지식재산(IP) 담당 관계자와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.
  - \* 간담회 참여 기업: (주)녹십자, (주)보령, (주)유한양행, 일동제약(주), (주)종근당
  - 간담회는 코로나19 이후 그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국내 제약산업의 세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약업계의 지식재산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다양한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.
- 간담회 참석자들은 제약분야 해외 선도 기업과의 신약 개발 경쟁의 애로사항을 소개하면서, 연구개발(R&D) 결과를 신속히 보호받기 위한 심사·심판 서비스, 존속기간 연장제도 등과 관련한 업계의 건의사항을 전달하였다.
  - 이에 특허청은 미국·유럽 등 선진국 수준으로 의약품 특허 존속기간 연장제도를 개선하는 등 제약업계의 연구개발(R&D)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소개하였다.
- 이인실 특허청장은 “미래 혁신성장동력인 제약산업에서의 고품질 특허는 우리기업이 전 세계적 선도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요소”라고 강조하면서,
  - “특허청은 국내 제약업계의 연구개발 성과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, 우리 제약 기업들이 세계적인 우수 제약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하겠다”고 밝혔다.